

우리말 ‘ㄱ+ㄱ’의 준말에 대하여

조 규태

— 차례 —

1. 들머리
2. ‘ㄱ+ㄱ’ 준말의 음운론적 해석
3. ‘ㄱ+ㄱ’ 준말의 표기
4. 마무리

〈버리〉

우리말에는 ‘ㄱ+ㄱ’의 준말이 만들어 내는 겹홀소리가 있다. 이 겹홀소리는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이 겹홀소리를 표기할 글자도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. 그러나 이 겹홀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, 예컨대 ‘바꾸어’의 준말인 ‘바뀌’[pak'wø]와 ‘바뀌어’의 준말인 [pak'ɥø] 또는 [pak'wjø]가 변별되지 않는다. 그러므로 우리말 겹홀소리 체계 속에 [ɥø]와 [wjø]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.

이 겹홀소리의 존재는 최근의 방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. 지금 우리말에서는 ‘ㄱ’이 방언과 세대에 따라 [ü], [wi], [i] 세 가지로 발음되고 있는데, 이 다른 발음에 따라 ‘ㄱ+ㄱ’의 준말도 [ɥø]와 [wjø], 그리고 [jə], [i]로 각각 발음된다. 두 겹홀소리 [ɥø]와 세 겹홀소리 [wjø]는 지금 한글 체계 속에는 이들을 표기할 글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, ‘ㄱ’이라는 글자로 표기할 수가 있다. 예컨대, ‘쉬+어’의 준말은 ‘쉬’와 같이 표기할 수가 있다.

1. 들머리

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말 겹홀소리에는 오름 겹홀소리와 내림 겹홀소리의 두 종류가 있다. 오름 겹홀소리에는 jV형(ㅈㅅㅈㅅㅈㅈㅈㅈ)과 wV형(ㅊㅈㅈㅈㅈㅈ), 그리고 j̄i(-)의 세 종류가 있으며, 내림 겹홀소리에는 j̄j(-)가 있음이 밝혀져 있다.¹⁾ 그런데 지금까지 널리 인정하고 있는 이들 겹홀소리 이외에 우리말에는 ‘ㄱ+ㄱ’의 준말에 쓰이는 특이한 겹홀소리가 있다. 이 겹홀소리가 있음은 일찍이 허 웅(1985: 278~9)에 밝혀져 있는데, 이 겹홀소리의 소리값을 [ɥə]라고 보았다.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겹홀소리에 있는 [ɥ]를 [w]의 한 변이음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‘ㄱ+ㄱ’의 준말이 [ɥə] 이외의 다른 소리로도 발음되고 있음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.

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말에서 ‘ㄱ+ㄱ’의 준말이 만들어 내는 특이한 겹홀소리의 음운론적인 특징을 밝혀 우리말 겹홀소리 체계를 새로이 세운 다음, 이 겹홀소리를 표기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.

2. ‘ㄱ+ㄱ’ 준말의 음운론적 해석

2.1. 홀소리 ‘ㄱ’의 소리값

우리말에서 ‘ㄱ+ㄱ’의 준말은 움직씨가 끝바꿈할 때, 즉 ‘ㄱ’

1) 이 글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허 웅(1985)의 견해에 따라, 우리말 겹홀소리를 오름 겹홀소리로만 설정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가자 한다.

거쳐 훔훔소리 [i]로 바뀌어 가고 있음도 보여 주고 있다.

어쨌든 아직도 충주 지역에서는 ‘기’는 훔훔소리 [ü]와 겹훔소리 [wi]로도 발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. 중부 방언(경기도, 강원도, 충청도)과 전라도 방언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. 그러나 제주도 방언에는 [wi]로, 경상도 방언에서는 [wɨ] 또는 [i]로 실현되고 있다. 요컨대, ‘기’는 사용자 수에는 차이가 있으나, 현재 한국어 사용자들은 [ü], [wi], [i]의 세 가지 소리값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.

2.2. ‘기 + 기’ 준말의 실체

(1) ‘기’를 훔훔소리 [ü]로 발음하는 사람은 ‘기+기’의 준말을 발음할 때, [ü]를 반훔소리로 발음하게 된다. 이 때 발생하는 반훔소리는 [ɥ]라는 소리값을 가지고 있다. 국어의 높은 훔소리는 모두 4개인데, 반훔소리 /ɥ/를 국어 음소로 인정하게 되면, 이들 높은 훔소리를 발음하는 위치에서 모두 반훔소리가 발음되어 반훔소리가 모두 4개가 된다. 지금까지 국어에는 반훔소리가 최대 3개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(허 용 1985), 이제 반훔소리가 하나 더 있음이 발견된 것이다.

이 반훔소리의 설정으로 국어의 반훔소리는 다음과 같이 체계상으로 빈틈이 없게 된다. 그리고 /ɥ/는 /j/와도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/w/와도 대립 관계를 형성하여 변별력을 가지게 된다. (예. nɥəra ‘눠라’ : nwəra ‘눠라’)

	앞		뒤	
	평순	원순	평순	원순
반훔소리	j(i)	ɥ(ü)	ɥ(i)	w(u)

그리고 이 반홀소리들과 결합된 겹홀소리는 다음과 같다.

j계 : je jε jə ja ju jo
 ɥ계 : ɥə
 ʝ계 : ʝi
 w계 : we wε wə wa

허 웅(1985 : 279)에서는 이 [ɥə] 소리의 음운론적인 해석을 [wə]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. 그 주된 근거는 [ɥ]가 [w]와 변이음일 경우가 있음을 들고 있다.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. 예컨대 [ɥi]와 [wi]는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임의로 교체되기 때문에 준동음어를 형성할 수 없어 이 경우의 [ɥ]와 [w]는 변이음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. 그러나 앞서 살펴본 [ɥə]와 [wə]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. 이들은 준동음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[ɥ]를 별개의 음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. 예컨대, ‘뉘어’의 준말을 [nɥə]라고 발음하지 [nwə]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, 이 둘은 임의로 교체되어 쓰이지 않는다. 그리고 이 두 낱말은 뜻이 다르다.

(2) ‘기’를 [wi]로 발음하는 사람은 ‘기+기’의 준말을 발음할 때, [wi]의 [i]까지를 반홀소리로 발음하게 되므로 준말에서의 ‘기’를 [wj]로 발음하게 된다. 이렇게 되면 세 겹홀소리 [wjə]를 형성하게 된다.

nwi- + -ə → nwjə t'wi- + -ə → t'wjə
 swi- + -əs'- → swjəs'- hwi- + -əs'- → hwjəs'-

세 겹홀소리는 발음하기 힘들다. 빠른 속도로 반홀소리 둘을 발음해야 하기 때문이다. 그러나 언어 현실에서는 다음에 제시할 <표 1>에 있는 14개 움직임의 준말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.

(3) ‘기’를 [i]로 발음하는 사람은 ‘기+기’의 준말을 [jə] 또는 [i]로 발음한다.

$t_i- + -ə \rightarrow t_jə / t_i$ $pak'i- + -ə \rightarrow pak'jə/pak'i$

이 경우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겹홀소리나 홀홀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. 다만 지역에 따라, 예컨대 ‘바뀌+었다’의 준말을 ‘바꿨다’ 또는 ‘바꼈다’로 발음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.

2.3. 우리말 겹홀소리 체계

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말에는 ‘기’의 발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겹홀소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.

(1) ‘기’를 홀홀소리로 발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겹홀소리 체계

j계 : ja jə jo ju je jε

w계 : wa wə we wε

i계 : ɿi

ɥ계 : ɥə

(2) ‘기’를 겹홀소리로 발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겹홀소리 체계

1) 두 겹홀소리

j계 : ja jə jo ju je jε

w계 : wa wə we wε wi

i계 : ɿi

2) 세 겹홀소리

wj계 : wjə

3. ‘ㄱ+ㄱ’ 준말의 표기

한글이 창제된 이래 반홀소리를 따로 표기할 글자를 만들어 쓴 적은 없다. 그러므로 반홀소리 /ɥ/를 표기할 글자도 지금까지 겹홀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해 온 글자들과 관계를 지어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.

/ɥ/가 결합된 겹홀소리는 지금으로서는 두겹홀소리 /t͡ɥ/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겹홀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글자부터 생각해 보자. 먼저 지금 국어의 두겹홀소리를 표기하는 글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j계 겹홀소리 : ㅋ[je], ㆁ[jɛ], ㆁ[jə], ㆁ[ja], ㅍ[ju], ㅍ[jo]

w계 겹홀소리 : ㆁ[we], ㆁ[wɛ], ㆁ[wə], ㆁ[wa]

i계 겹홀소리 : ㆁ[i]

반홀소리 /j/는 홀홀소리 글자에 짧은 획 하나를 더하여 나타내고 있으며, 반홀소리 /w/는 홀홀소리 글자에 더해진 ‘ㄴ/ㄷ’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. 그리고 반홀소리 /ɥ/는 홀홀소리 글자에 더해진 ‘ㅡ’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. 모두 그 반홀소리가 발음되는 위치의 홀홀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와 관계지어 그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반홀소리를 표기하고 있다.

그렇다면 반홀소리 /ɥ/도 이 홀소리가 발음되는 위치의 홀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인 ‘ㄱ’자와 관련지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. 지금까지 만들어 사용해 온 겹홀소리 표기 글자의 전통으로 보아 /ɥ/와 결합된 겹홀소리 /t͡ɥ/는 ‘ㄱ’와 ‘ㄱ’를 결합한 ‘ㄱ’으로 표기할 수 있다. 그런데 이 글자는 두겹홀소리 /wɛ/²⁾를

2) 두겹홀소리 /wɛ/와 /wa/는 지금 한글 체계에서는 표기 전통에 따라

표기하는 글자로 오해할 염려가 있다.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두겹홀소리를 표기할 수밖에 없는데, 우리의 표기 전통으로 보아 적절한 글자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.

두겹홀소리 /t͡ɕ/을 표기할 글자는 적절히 만들어 쓰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세겹홀소리 /w͡ɕ/는 지금까지 겹글자를 만들어 써 온 전통에 따라 새로이 글자를 만들어 쓸 수가 있다. 준말 /w͡ɕ/는 반홀소리 /w/와 겹홀소리 /ɕ/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‘ㄱ+ㅅ’를 합한 글자인 ‘ㄱㅅ’로 표기할 수가 있다. 이 글자는 한 번도 만들어 쓴 적이 없으므로³⁾, 다른 음을 표기한 것으로 오해될 염려도 없다.

‘ㄱ+ㅅ’의 준말을 ‘ㄱㅅ’로 표기하게 되면 이 준말을 /t͡ɕ/로 발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값은 정확히 표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. 그러나 이 경우도 조금만 널리 생각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.

첫째는 한글 글자 중에서 ‘기’라는 글자는 /ü/와 /wi/ 두 가지 음운을 표기하는 데 쓰이고 있고 의미 변별에 지장이 없다. 그것은 이 두 음운이 세대와 방언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소리일 뿐 음운론적인 대립을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 글자 모양으

‘계’와 ‘가’를 표기하고 있으나, 이들 겹홀소리의 소리값인 [‘u’ 음에서 다른 홀소리로 가는 과도에서 나는 소리]로 보아 ‘계’와 ‘가’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러므로 새로 ‘계’라는 글자를 만들어 쓰게 되면 발음으로 보아 /wɛ/ 음을 표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

3) 이와 비슷한 글자로 ‘ㅉ, ㅊ, ㅊ, ㅊ’ 등이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으나(김 동소 1998 : 106), 모두 내림 겹홀소리로 끝나는 홀소리들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. 현대 국어를 표기하는 데 이 글자를 사용한다면, 앞의 두 글자는 [joj], [juj]라는 내림 세겹홀소리를 표기하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, 뒤의 두 글자는 [jue], [juje]라는 소리를 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.

로 보아서는 /wi/ 음의 표기에 가까우나, 사람에 따라 달리 발음하고 있을 뿐이다. ‘기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. /qə/와 /wja/ 두 가지 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하고 사람에 따라 달리 발음하면 되는 것이다. 물론 이 경우도 이 두 가지 음이 국어에서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.

둘째로는 /qə/와 /wja/는 세대에 따라 둘 중의 하나로 발음하고 있는데, /wja/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, 국어의 홀소리 변천 과정을 볼 때 언젠가 /qə/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. 그러므로 이 두 겹홀소리를 표기하는 글자를 각기 따로 만들어 쓰기보다는 /wja/를 표기하는 글자 하나만 만들어 두 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.

우리말에서 ‘기’ 소리를 줄기의 끝 홀소리로 가지고 있는 낱말을 모두 찾아서, 이들이 ‘-어’로 시작하는 씨끝과 결합하여 만든 준말을, 위에서 만든 글자를 이용하여 표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.

<표 1>

뀌+어→뀌	뀌+어라→뀌라	뀌+었다→뀌다
뉘+어→뉘	뉘+어라→뉘라	뉘+었다→뉘다
뛰+어→뛰	뛰+어라→뛰라	뛰+었다→뛰다
쉬+어→쉬	쉬+어라→쉬라	쉬+었다→쉬다
쥐+어→쥐	쥐+어라→쥐라	쥐+었다→쥐다
튀+어→튀	튀+어라→튀라	튀+었다→튀다
휘+어→휘	휘+어라→휘라	휘+었다→휘다
나뉘다→나뉘	나뉘+어서→나뉘서	나뉘+었다→나뉘다
바뀌다→바뀌	바뀌+어서→바뀌서	바뀌+었다→바뀌다
비취다→비취	비취+어서→비취서	비취+었다→비취다
사귀다→사귀	사귀+어서→사귀서	사귀+었다→사귀다

야위다→야위 야위+어서→야위서 야위+었다→야위었다
 여위다→여위 여위+어서→여위서 여위+었다→여위었다
 지저귀다→지저귀 지저귀+어서→지저귀서 지저귀+었다→
 지저귀었다

3. 마무리

우리말에는 ‘ㄱ+ㄱ’의 준말이 만들어 내는 겹홀소리가 있다. 이 겹홀소리는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이 겹홀소리를 표기할 글자도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. 그러나 이 겹홀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, 예컨대 ‘바뀌어’의 준말인 ‘바뀐’[pak'wə]와 ‘바뀌어’의 준말인 [pak'ʌ] 또는 [pak'wʌ]가 변별되지 않는다. 그러므로 우리말 겹홀소리 체계 속에 [ʌ]와 [wʌ]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.

이 겹홀소리의 존재는 최근의 방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. 지금 우리말에서는 ‘ㄱ’이 방언과 세대에 따라 [ü], [w i], [i] 세 가지로 발음되고 있는데, 이 다른 발음에 따라 ‘ㄱ+ㄱ’의 준말도 [ʌ]와 [wʌ], 그리고 [jə], [i]로 각각 발음된다. 두겹홀소리 [ʌ]와 세겹홀소리 [wʌ]는 지금 한글 체계 속에는 이들을 표기할 글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, ‘ㄱ’이라는 글자로 표기할 수가 있다. 예컨대, ‘쉬+어’의 준말은 ‘쉬’와 같이 표기할 수가 있다.

〈참고 문헌〉

- 박 경래. 1993. <충주 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>,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.
 배 주채. 1998. <고흥 방언 음운론>. 태학사.

우리말 ‘기+기’의 준말에 대하여: 조 규태

- 이 익섭. 1981. 《영동 영서의 언어 분화》. 서울대 출판부.
정 연찬. 1991. <현대국어 이중모음 체계를 생각하여 본다>, 석정 이
승욱 선생 회갑 기념 논총.
허 응. 1968. <국어의 상승적 이중모음 체계에 있어서의 「빈칸」(case
vide)>, 이 승녕 박사 송수 기념 논총.
허 응. 1985. 《국어 음운학》. 샘 문화사.
현 평효. 1985. 《제주도 방언 연구(논고편)》. 이우 출판사.

<조 규태 : 경상대 교수, 국어학>